

고흥군, 제16회 우주항공축제 5월 '팡파르'

2-5일 나홀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서 체험형 콘텐츠·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내달 11일 서울서 팝업쇼 수도권 공략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지고 전국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축제를 추진한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우주의 신호(Space Signal)'를 슬로건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우주가 보내는 생명의 신호와 인류의 미래를 연결한다는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장했다.

축제 이튿날인 오는 5월3일 고흥 하늘을 최초로 수놓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는 핵심 볼거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는 블랙이글스는 나로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밀한 곡예비행과 화려한 컬러 스모크 퍼포먼스를 펼치며 방문객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

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을 필두로 카이스트-무인탐사연구소 우주 로버 파일럿 체험 등 고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우주 특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실물체 전시관에서는 나로호와 누리호의 실제 연구 성과물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주비행사 특별 체험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우주 토크쇼도 마련된다.

또한 우주복 입기 체험과 로켓 모형 발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별도의 유료 체험존이 운영되며, 지구 귀환 우주 캡슐과 불시착 우주 비행선 등 몰입감을 극대화한 초대형 조형물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군은 본 축제의 성공적인 흥행을 위해 4월 11-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대대적인 사전 팝업쇼를 열고 수도권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공략한다.

팝업쇼는 지구 문명, 우주 문명, 우주인 카니발 등 3개의 독창적인 테마존으로 꾸며져 도심 한복판에서 우주의 신비로움을 미리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장에서는 우주 발사체 모형과 화성 표면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사전 접수, 한정판 우주 굿즈 판매가 진행돼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이밖에 군은 이번 축제 기간에 맞춰 오는 4월3

0일부터 5월3일까지 녹동항 일원에서 '녹동바다 불꽃축제'를 연계 개최해 체류형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낮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첨단 우주 과학을 체험하고 밤에는 녹동항으로 이동해 대규모 드론쇼와 화려한 불꽃놀이, K-아트 페스티벌을 즐기는 완벽한 체류형 코스를 제공한다. 이는 복안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축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고흥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축제"라며 "어린이들에게는 원대한 꿈을,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완벽한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소아 대사증후군 아동' 맞춤형 지원

'제1기 어린이 건강발걸음 사업' 초등생 3-6학년...20일까지 접수 BMI 95 이상 아동 다각적 개선

곡성군이 고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소아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맞춤형 통합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기부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된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까지 '2026년 제1기 곡성 어린이 건강발걸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아 대사증후군을 선제적으로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95이상인 어린이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정된 토요일 오전에 운영된다.

교육 장소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로 지정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다각적인 통합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체 활동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단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영양 교육,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 지원 프

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병행된다. 특히 군은 단계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전후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 지도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챙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참여 어린이들이 맘 쉼터 뛰어놀며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경험하고, 평생의 건강 관리 습관을 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최근 장성을 게이트볼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구강건강버스' 출발식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찾아가는 '구강건강버스' 본격 운행

장성군은 15일 "지난 12일 장성을 게이트볼경기장 일원에서 의료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구강건강버스' 출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구강건강버스는 지난해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2억4천600

만원을 투입해 마련된 2인승 이동 진료소다. 버스 내부에는 치과 진료용 의자를 비롯해 구강 카메라, 틀니 세척기 등 전문 의료 장비가 빈틈없이 구축돼 있다. 특히 방문 주민들에게 구강 진료는 물론 한방 침 시술, 아로마 테라피, 맞춤형 건강 상담 등 다채로운 통합 건강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제공해 만족도를 높인다.

이밖에 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300-8344)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가 힘든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할 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맞춤형 의료 복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농업법인 구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탄탄한 조직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순 생산 지원을 뛰어넘어 가공과 유통, 브랜드 마케팅이 완벽하게 결합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들이 '1읍·면 1특품' 브랜드 육성 박차

여수시, '1읍·면 1특품' 브랜드 육성 박차

지역 대표 특품 가공식품 전환 지원

여수시가 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 품목 브랜드 발굴·집중 육성에 나선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돌산읍 갯, 화양면 옥수수, 남면 방풍, 삼산면 속 등을 지역 대표 특품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해 농가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특품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소라면(단호박) ▲울촌면(감자·당근) ▲화정면(부추) 등 주요 농업 현장을 최근 잇따라 순회하며 발굴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단순 원물 생산을 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

했다. <사진> 이에 시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적극 독려하고, 해당 농가에 포장재와 택배비 보조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순 생산 지원을 뛰어넘어 가공과 유통, 브랜드 마케팅이 완벽하게 결합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 다향울림촌이 전남도가 선정하는 '3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다향울림촌 밤 야외 정경 모습. <보성군 제공>

보성 다향울림촌,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청정 자연환경 결합 콘텐츠

힐링 체류형 관광지 큰 인기

보성 지역을 대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다향울림촌'이 전남도 우수마을에 선정됐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회천면에 위치한 다향울림촌은 보성녹차와 청정 자연환경을 결합한 특화 콘텐츠를 높이 평가받아 전남도가 뽑은 '3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곳은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찻잎을 우려낸 녹차 족욕 체험을 비롯해 녹차 초콜릿과 한 안대 만들기 등 보성만의 특색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감자 피자과 특산 키위 케이크 만들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체로운 로컬푸드 체

험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보성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 펜션형 숙소까지 완벽하게 갖춰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다향울림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체험과 숙박 부문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뛰어난 체류 인프라를 입증한 바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량 가득한 다향울림촌이 전국적인 체류형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보성의 참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쌀 수급 안정...오는 5월29일까지

담양군은 15일 "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5월2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ha)당 5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수급조정용 벼'를 가공용으로 계약 출하할 경우 전락작물 직불금 500만

원에 더해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용도 제한 해제 시에는 일반 쌀로 변경돼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기 농업유통과장은 "쌀 생산량 조절과 선제적인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화순군은 "최근 도입된 제정경로당에서 민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민원창구는 교통편이 취약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사업과 연계해 밀착형으로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각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르신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눈높이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교육용 키오스크 앱을 활용해 열차표 예매와 음식 주문, 병원 진료 예약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기기 조작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창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차별 없는 민원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